

# 심리전기적 심층면담(PII)이 부모의 통찰수준 및 부모-자녀 관계특성에 미치는 효과

강상현\*, 손정락\*\*  
마더심리학습센터\*,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The Effect of Psychobiographical Intensive Interview on Parent's Insigh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Characteristic

Sang-Hyun Kang\*, ChongNak Son\*\*  
Ma-Deo Psychological Learning Center\*  
Dep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전기적 심층면담(Psychobiographical Intensive Interview: PII)이 부모의 통찰수준, 부모-자녀 관계특성 및 상담회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PII를 실시했다. PII는 심리전기적 정보탐색을 위한 심층면담과 이에 대한 해석상담이 포함되어 있는 반구조화된 형태이다. 연구결과 부모의 자녀 문제에 대한 통찰과 자신의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통찰 수준이 의미 있게 높아졌다. 반면, 자녀와의 관계특성에 대해 알아본, 부모효능감,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중 일부에서만 유의한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PII에 대한 상담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상담회기영향평가를 통해 알아본 결과 과제영향, 관계영향 및 유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심리전기, 심리전기적 심층면담, 부모의 통찰수준, 부모-자녀관계, 상담회기영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sychobiographical intensive interview(PII) on the parent's insight, parent-chil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nd counseling session. For this, the PII was conducted to 10 mothers with school age children. PII was semi-structured form that included the intensive interview for exploring 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 and interpretation counseling of i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insight into parent's child problem and relation to parent's own problem was significantly increased. On the other hand, parent-chil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parental efficacy,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only in some of the parenting stresses. W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as a counseling tool for PII through counseling session impact assessments. As a result of that, we confirmed that there were positive results in task impacts, relationship impacts, and helpful impacts.

**Key Words** : Psychobiography, Psychobiographical Intensive Interview, Parent's Insight, Parent-Child Relationship, Counseling Session Impact

Received 27 March 2017, Revised 27 April 2017  
Accepted 20 May 2017, Published 28 May 2017  
Corresponding Author: ChongNak Son  
(Dep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jrson@jb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취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타인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존재이며, 이 때문에 유아기부터 본능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의존하게 된다[1]. Paris[2]는 아동과 가족에 관한 자신의 수많은 연구 경험에 기초해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자녀가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으로 안내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이야기 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정서, 성격, 대인관계 등의 심리적 특성이 발달하게 됨은 분명하다. 애착이론과 대상관계이론가들에 따르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초기 영아기 때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내재화되어 삶 속에서 반복된다고 한다[3, 4]. 부모와 자녀 관련 연구들을 보면, 부모가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대거나 거부적이기 보다 수용적인 경우 또래관계에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많아 학교 적응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응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5, 6, 7].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부모의 특성은 아동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지각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8]. Winnicott[9]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의 신체적 무능의 한계 때문에 반드시 '촉진적인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자신이 가진 타고난 잠재력도 실현하게 된다고 하면서 부모(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면, 자녀에게 바람직하고 촉진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는 가치관의 혼란과 과잉 정보 속에서 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기가 쉬운데, 확대가족이 아닌 핵가족 형태가 만연한 최근에는 양육과 관련해 인적·정서적 자원을 얻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10]. 부모가 자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문제로 인해 양육과정 중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도 보호하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관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아동은 자신이 처한 환경 혹은 상

황에 대해 불평하고 적대적이 되어 대인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이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되며, 심한 경우 품행문제까지 보이게 된다[11, 12]. 즉, 부모의 심리적 문제와 그에 따른 양육과정 상에서의 문제로 인해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 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녀의 정서 및 성격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13].

Bowen은 부모의 심리적 문제가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다세대 전이(multigeneration transmission)라는 개념을 통해 명시했다. 즉, 부모가 자신의 원가족(family of origin)으로부터 경험한 관계, 태도, 정서 또는 행동양식을 자신이 형성한 새로운 가정 내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14]. 특히,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모의 문제는 부모-자녀 간 자율성과 친밀성을 비롯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중요한 신념 형성에까지 세대를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된다[1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모-자녀 관계특성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의 문제들을 명확히 정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아동기 원가족 내에서의 경험을 비롯해 부모가 되기 전까지의 삶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가정할 수 있다. 부모가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 노력은 자녀의 정서, 인지, 사회, 의사소통방식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 스스로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과정까지도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6].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현 문제에 대한 이해, 그 이면에 부모 자신의 내적 불안정성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 그리고 부모 자신의 원가족과의 경험 및 그 경험이 현재 자녀와의 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중단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접근과 관련하여 아동기 경험이 성인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을 발달시키거나 행동의 의미에 대한 가설을 제공하는데 유용한 방법론 중 하나가 심리전기라 할 수 있다[17].

심리전기(psychobiography)에 대한 정의는 주로 전기(biography)에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심리학 이론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심리학 및 역사기록학적(historiographic)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전 생애를 연구하는 분야라는 좀 더 확장된 정의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다[18]. 심리전기적 정보를 활용할 경우 한 사람의 삶 전반에 대해 다각적 접근을 할 수 있어 인지, 정서, 심리사회

적 이해가 가능하며, 타인에 대한 태도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19, 20].

심리전기적 심층면담에서는 참가자의 심리전기적 정보를 활용한 심층 면담과 면담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심리학적인 이론을 기초로 한 사례개념화 및 그에 대한 해석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인격형성과정, 대인관계방식 상의 특성 등을 포함한 자기이해와 이를 통한 자녀 및 자신의 현재의 문제에 대한 통찰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특성 및 상담 회기 내에서 내담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아울러 심리전기적 정보를 활용한 심층면담의 상담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목적에 포함할 수 있겠다.

## 2. 방법

### 2.1 참가자

본 실험의 참가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이었다. 지역 교육청 Wee-Center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심리 특성, 부모-자녀 관계특성에 대해 알고 싶거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어머니)를 공개모집했다. 총 13명이 지원했으나, 면담 직전 참여 의사를 번복하거나 중도 포기한 3명을 제외한 10명이 최종 참가했다. 참가 어머니의 연령은 33-51세, 학력은 고졸에서 대학원 졸업까지 다양했고, 1명을 제외한 9명의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상태였다. 자녀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초등학교 8명, 중학생 2명)였고, 성별은 남아 4명, 여아 6명이었다.

### 2.2 절차

모든 참가 어머니들은 심리전기적 심층면담에 앞서 자녀 및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 정도와 자녀와의 관계 특성(부모효능감,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대해 알아보는 설문지를 작성했다.

심리전기적 심층면담은 1 대 1 개인상담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대략 90-100분에 걸친 정보탐색 회기와 그 이

후 1-2주 사이에 심층면담에서 다루어졌던 면담 내용과 설문 결과들을 종합하여 사례개념화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해석상담 회기가 포함되어 있다. 사후평가에서는 면담 전 실시했던 설문지와 상담회기영향척도 등의 추가 설문지를 실시했다. 한편, 상담과정을 제외한 설문지 배포와 이에 대한 수집과정은 상담자가 아닌 기관 내 직원에 의해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상담 시작 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과 함께 사전 설명했다.

### 2.3 심리전기적 심층면담

PII는 반구조화 면담형태로서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에서는 현재의 주요소 문제 탐색을 중심으로 하고, 이어지는 2단계에서 현 문제를 이해하고 명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담자의 심리전기적 정보를 탐색한다. 즉, 참가자는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의 영향, 성장과정(출산에서 성인기까지)에서의 경험들, 배우자와의 만남과 결혼, 출산과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재까지의 삶의 과정을 개괄적이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된다. 다만, 언급한 바와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호소문제와 관련 있을 법한 과거의 특정 시점 및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데(특히, 양육자와의 상호작용특성), 그 때의 상황, 생각, 느낌 및 현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때를 바라볼 수 있게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전기적 정보탐색 과정은 단지 정보를 찾고 기록하는 과정이 아닌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상담과정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탐색과정에서 돌출된 이야기들과 관련해서는 참가자의 주관적인 감정 경험들에 대해 공감적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과정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확인된 심리전기적 정보들 및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합한 후 이를 심리학적 이론들(대상관계이론, 애착이론, Bowen의 가족치료이론, Erikson의 심리사회적발달단계 등) 중 가장 타당한 이론에 입각해 사례개념화를 한다. 첫 심층면담 후 1-2주 후 면담에서 해석상담의 형태로 참가자에게 사례개념화 내용을 전달하며, 그 과정에서 통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를 위한 대안 모색의 기회까지 가진다.

### 3. 측정도구

어머니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 통찰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자녀의 현 문제에 대해 어머니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정도와 자신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성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통해 평가했다.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특성에 대해서는 부모효능감(인지 및 정서), 양육태도(수용-거부) 및 양육 스트레스(자녀의 기질과 상호작용 측면)를 통해 확인했다. 어머니 자신의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내적 통찰과 관련해서는 상담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새로운 생각 및 느낌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적 변화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PII의 상담 도구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상담회기 내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 문제에 대한 통찰

부모가 자녀의 현재 문제나 어려움 및 부모 자신의 내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통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7점 척도 점수로 확인했다. 자녀 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해서는 '왜 자녀가 어려움/문제를 보이는지 모르겠다(0)'에서부터 '전적으로 알고 있다(6)'에 이르기까지다. 자녀의 문제나 어려움이 자신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나 문제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0)'에서 '나의 문제와 밀접하다(6)에 이르기까지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평가했다. 또한 두 영역과 관련하여 상담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그와 관련한 생각과 느낌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적 변화와 통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숙제와 정문자[21]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했다. 총 16문항이며, 문항내용에 기초하여 인지적 측면에서의 '부모효능감'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부모로서의 불안감' 요인으로 구분되며,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78이었다.

#### 양육태도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ohner와 Rohner[22]의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를 권순명[2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크게 수용차원과 거부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수용차원은 온정/애정의 표현을 나타내며, 안아주기, 쓰다듬기, 웃어주기 등의 신체적 표현과 칭찬해주거나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하는 언어적 표현이 포함된다. 거부차원은 부모의 애정이나 따뜻함의 결여로 정의되는데,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모호한 거부로 세 가지 측면을 통해 확인된다. 검사의 하위차원별 내적 합치도는 .70~.90으로 양호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차원과 거부차원 점수만을 양육태도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했다.

#### 양육스트레스

참가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Abidin[24]의 Parenting Stress Index를 신숙제와 정문자[21]가 수정 변환하여 30문항으로 만든 척도를 사용했다. 요인은 총 세 가지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습 기대와 관련된 요인은 참가자 자신보다는 자녀의 인지적 취약성 등과 관련된 측면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두 가지 요인만을 확인했다.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8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은 .74였다.

#### 상담의 영향

PII의 상담 도구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담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Frontman & Kunkel[25]에 따르면, 상담 성과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회기영향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참가자가 상담 과정 중 경험한 의미 있는 사건들을 파악하고 그 때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lliott와 Wexler[26]가 제작한 상담 회기영향척도(Session Impacts Scale: SIS)를 문현미와 민병배[2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총 1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위 척도에는 과제영향, 관계영향, 유익성(과제영향과 관계영향을 포괄하는 고차적 척도), 방해영향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5, .91, .93, .76이다. 아울러 PII 이후 소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해 상담을 통한 참가자의 내적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상담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 4. 결과

### 4.1 문제에 대한 통찰에 미친 효과

PII 참여가 참가자의 자녀 문제 및 자신의 내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통찰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담 전과 후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Paired T-test)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nge in the Level of Insight between Pre and Post

	Pre(n=10)	Post(n=10)	<i>t</i>
	M(SD)	M(SD)	
Insight(for Child)	4.10(0.87)	5.10(0.87)	-3.354**
Insight(for Self)	4.00(8.16)	5.30(0.67)	-6.091**

\*\**p*<.01

<Table 1>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PII에 참여한 이후 자녀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통찰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t*(9)= -3.354, *p*<.01).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자녀와의 관계를 비롯해 자녀의 문제가 자신이 가진 내적 불안정을 포함한 자신의 문제와 관련 있음에 대한 통찰 수준도 의미 있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t*(9)= -6.091, *p*<.01). 이와 같은 통찰 수준의 변화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보고들이 주를 이루었다. [부적절한 양육 태도(예: ‘아이의 불만해하는 경향이 엄마가 세상을 불안하게 보는 것, 아이를 믿지 못해 따라다니게 된 점 때문인 것 같다.’)], [부부간 불화와 결혼생활에서의 문제들(예:‘아이의 예민함이 기질적인 것보다 상황이 만들어 낸 것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와 남편의 태도 때문에 아이가 부모와 동생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게 되었다.’)], [아동기의 불안정한 양육경험의 전이(예: ‘나 자신의 어릴적 부모로부터의 고통이 아이에게 똑 같이 행하게 됨에 놀라웠다!’, ‘내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많이 수용 받지 못했을 가능성과 그 경험이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4.2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특성에 미친 효과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특성에 PII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사전-사후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했다(<Table 2> 참조).

<Table 2> Efficacy, Attitude, Stress Change between Pre and Post

		Pre(n=10)	Post(n=10)	<i>t</i>
		M(SD)	M(SD)	
Efficacy	Cognitive	29.50(4.40)	31.00(7.10)	-1.096
	Affective	11.20(4.34)	10.20(3.58)	1.399
Attitude	Acceptance	67.60(8.38)	67.90(13.56)	-0.146
	Rejection	78.20(16.69)	76.50(21.15)	0.639
Stress	Temperament	18.60(6.00)	17.40(4.83)	-2.025
	Relation	25.10(6.15)	22.50(6.25)	-3.545*

\**p*<.05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특성에 미친 PII의 효과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모효능감과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양육스트레스에서만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었는데, 자녀의 기질에 따른 스트레스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 중에 겪는 스트레스는 의미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9)= -3.545, *p*<.05).

### 4.3 심리전기적 심층면담의 상담 도구로서의 가치

PII가 면담과 해석상담의 형태로 짧게 이루어진 관계로 상담회기영향평가는 단 1회만이 가능했다. 때문에 상담회기영향평가척도 점수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나 회기별 변화추이를 알아보는 등의 통계적 접근은 어려웠고, 대신 SIS 본 척도[27]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비교를 통해 상담도구로서의 의의를 확인해 보았다(<Table 3> 참조).

본 연구의 PII에 대한 회기영향평가 결과(SIS-S)를 보면,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하위척도들(과제영향, 관계영향, 유익성) 모두 척도 개발당시 결과에 비해 높았고, 특히 전문가 집단만의 상담회기 영향에 비해서도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해영향의 경우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PII 참가 시 방해영향도 특별히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ession Impact Scale

Sub-scale	SI-S	SI-O	SI-OP
	M(SD)	M(SD)	M(SD)
Task	19.7(3.4)	15.9(4.0)	16.3(3.9)
Relationship	19.7(4.6)	17.3(4.2)	18.0(4.0)

한편, 면담 이후 참가자들의 소감문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가 자신의 과거 생활사와 관련한 심리전기적 특성이 자신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포함한 내적 불편과 자녀 양육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자신의 문제가 자녀에게 전이된다는 점을 비롯해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동기가 증가되었음을 언급한 보고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두 명의 참가자의 경우 자신 스스로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에서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자신의 문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졌을 뿐이라는 보고만을 하기도 했다. 두 참가자의 경우 심리전기적 정보 탐색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나,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시댁 식구와의 강한 갈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당면해 있는 문제가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에 내적 통찰 및 그에 따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았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PII을 실시함으로써 자녀가 겪고 있는 현 문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특성에 대한 통찰 수준을 높여주고자 했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비롯해 삶의 과정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변화의 동기 부여와 함께 스스로가 대안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PII 전과 후를 확인해 본 결과 자녀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신의 내적 특성과 관련된 정도에 대한 통찰 수준도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절한 양육태도, 부부간 불화와 결혼생활에서의 문제들이 현재 자신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이해했다는 보고가 추가적인 기술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자신의 아동기 불안정한 양육경험이 자녀에게 전이되었음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보고가 두드러졌다. 이는 Bowen이 언급한 다세대 전이를 본 면담을 통해 참가자가 충분히 인식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모의 문제가 부모-자녀 간 자율성과 친밀성을 비롯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중요한 신념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부합

하는 결과인 듯하다[14, 15, 16].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모효능감,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를 PII 전과 후에 평가해보았으나, 양육스트레스에서만 일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을 뿐 그 이외의 특성들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자녀와의 상호작용 중에 겪곤 하는 양육스트레스에서 만큼은 상당한 감소를 보였지만, 그 외에 어머니와 관계특성에서는 두드러진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 2회에 걸친 짧은 면담을 통한 내적 통찰만으로는 다년 간 지속되어 온 양육태도를 포함한 관계 방식에까지 영향을 끼치기에는 제한이 따름을 시사한다. 부모 효능감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 한다는 점[28]을 고려하고 보면, 효능감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양육경험이 꽤 긴 시간 경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 같다. 아울러 좋은 부부관계에 기초한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았을 때 부모 효능감이 증진 된다는 Belsky[29]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효능감의 개선을 위해서도 보다 복합적인 경험들이 필요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의미 있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양육태도가 부모의 성별, 연령, 성격, 지적 능력, 신념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수입, 사회적 지원, 직업, 양육 경험, 부부 관계, 가족 크기, 그리고 자녀의 특성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30].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부모효능감과 양육태도와 같은 특성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복합적 요인들이 고려된 보다 심층적인 경험과 그 과정 동안 상당한 혼슈이 가능한 비교적 오랜 기간의 상담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PII가 상담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상담회기영향평가척도(SIS)와 참가자의 자기보고를 기초로 하여 확인했다. 그 결과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하위척도들(과제영향, 관계영향, 유익성)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확인되었고,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해영향 또한 척도 개발 당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면담 이후 참가자들의 소감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의 과거 생활사와 관련한 심리전기적 특성에 대한 탐색이 자신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포함한 심리적 특성, 자녀 양육문제, 자신의 문제가 자녀에게 세대 전이되는 점에 상당한 통찰과 내적 변화를 가져온 듯 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변화의 동기가 증가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상담회기영향에 대한 평가가 상담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상담의 즉시적 성과를 시사한다는 선행 연구들[25, 27]의 주장에 근거할 때, PII가 상담도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임상장면,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상담하는 장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인다. 아동 및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러한 문제가 형성되기까지의 가정 내 환경 및 부모 특성,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특성 등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할 듯 하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은 내적 통찰 수준의 증가는 평가적 측면에서는 물론 상담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 변화를 위한 동기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PII가 상담 도구로써 실질적인 가치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실적 여건 상 장기간의 치료회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나, 문제가 주로 부모의 내적 특성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PII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및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PII의 영향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어머니-자녀의 관계특성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자아개념,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만이 아닌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측면이 함께 고려되었다면 보다 풍부한 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고려된다. 아울러 원가족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나 통찰 수준에 대한 탐색도 PII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정보였을 듯 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전기적 특성만을 확인했는데, 아버지의 심리전기적 특성에 대한 탐색을 위한 심층면담도 병행된다면, 자녀 문제와 가정내 역동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든다. 심리전기적 접근을 통한 심층면담이 평가는 물론 상담 도구로써의 가치까지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부모-자녀의 문제 이외에 여러 주제나 연구대상, 사례수를 확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 같다.

## REFERENCES

- [1] A. Adler.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H. L. Ansbacher and R. R. Ansbacher(Eds.).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56.
- [2] E. Paris. "Interrupting Trauma and Advancing Development: considering parent education in contemporary psychoanalytic treatment,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Vol. 41, pp. 84-92, 2013.
- [3] O. Kernberg.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N. Y.: Jason Aronson. 1976.
- [4] D. W. Winnicott. "Playing and Reality" J. H. Lee. Seoul: Korean Psychotherapy Research Institute, 1997.(Original work published 1971).
- [5] H. J. Park, S. M. Cheon & D. B. Ju.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proneness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ed by shame-pronenes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2), pp. 35-49, 2011.
- [6] J. H.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 parental attitudes and the peer relationship." A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10.
- [7] E. S. Jung & H. I. Cho. "The effects of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roles of hardiness as mediato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1(1), pp. 209-227, 2009.
- [8] I. J. Ju. "The effects of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on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of adolescent children." A Master's Thesis, Presbyterian University, 2006.
- [9] D. W. Winnicott. "Communication between infant and mother, mother and infant, compared and contrasted. In *What is Psychoanalysis?*"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London: Balliere, Tindall and Cassell. 1968.
- [10] H. K. Kim.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parent education program including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 Children & Rights. Vol. 18, No. 3, pp. 331-366, 2014.
- [11] L. Steinberg.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11, No. 1, pp1-19, 2001.
- [12] D. H. Ryu. "A study on the socio-psychological conflic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ccording to their perceived acceptance rejection of parents and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2000.
- [13] P. Salovey & J. D. Mayer.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 Basic Books. 1996.
- [14] M. J. Benson, J. H. Larson, S. M. Wilson & D. H. Demo. "Family of origin influence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5, pp. 663-672, 1993.
- [15] P. Klever. "The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unit function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 33, pp. 253-264, 2005.
- [16] D. A. Hughes. "Attachment-focused parenting." N. Y.: W. W. Norton & Company, 2009.
- [17] W. M. Runyan. "Life Histories and Psychobiography: Explorations in theory and Metho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18] J. G. Ponterotto, J. D. Reynolds, S. Morel & L. Cheung. "Psychobiography training in psychology in north america: Mapping the field and charting a course",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Vol. 11, No. 3, pp. 459-475, 2015.
- [19] W. T. Schultz. "Handbook of Psychobi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20] S. H. Kang & C. Son. "The Effect of Psychobiographical Information on Attitude Change toward mentally Ill Peopl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 451-457. 2017.
- [21] S. J. Shin & M. J. Chung.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19, No. 1, pp. 27-42. 1997.
- [22] R. P. Rohner & E. C.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r." *Ethnology*, Vol. 20, pp. 245-260, 1981.
- [23] S. M. Kw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rearing experience and ego-identity formation and attribution."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993.
- [24] R. R. Abidi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90.
- [25] K. C. Frontman & M. A. Kunkel. "A grounded theory of counselors' construal of success in the initial s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1, pp. 492-499, 1994.
- [26] R. Elliott & M. M. Wexler. "Measuring the impact of session in process- experiential therapy of depression: the session impact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1, pp. 166-174, 1994.
- [27] H. M. Moon & B. B. Mi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ssion impact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3, No. 3, pp. 247-264, 2001.
- [28] C. Johnston & E. J. Mash.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18, pp. 167-175, 1989.
- [29] J. Belsky.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Vol. 55, pp. 83-96, 1984.
- [30] T. J. Luster. "Influence on maternal behavior: Child rearing beliefs, social support and infant temperament." Unpublished Manuscript,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85.

강 상 현(Kang, Sang Hyun)



- 2004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석사)
- 2012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수료)
- 2012년 10월 ~ 현재 : 마더심리학습 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심리상담, 심리전기
- E-Mail : malgnaldo@naver.com



손 정 락(Son, ChongNak)



- 197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석사)
- 198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 관심분야 : 임상심리학, 건강심리학
- E-Mail : jrson@jbnu.ac.kr